



새만금공사,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새만금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이 현장 밀착형 안전 행보에 나섰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재훈 이하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인영준, 이하 공단)와 합동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 현장에서 ‘폭염, 함께 이겨내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안전보건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사는 이동식 음료차를 운영해 근로자들에게 수분 보충을 위한 음료를 제공하고 현장 근로자들과 안전대화를 갖고 혹서기 작업환경과 에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안전포 물링패드와 냉감목걸이,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전달하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했다.

아울러 공사, 노동부, 공단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휴게시설과 식수 비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안내하고 폭염 대응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오만호 기자



남원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개최

남원소방서는 7월 15일 오전 11시, 지리산 뱀사골 반산주장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진행된 구조 시연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수면 지역 공중 순찰 및 방송 홍보를 비롯해 물에 빠진 익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시민수상구조대와 소방대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전하게 구조·처치하는 일련의 과정이 실전을 방불케 실시간으로 펼쳐져 큰 주목을 받았다.

시민수상구조대는 수난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물놀이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수상 인명구조 및 익수사고 방지 안전조치 △수변 여가 활동 및 위험요인 제거 △파사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및 안전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관국 대응구조팀장은 “지리산을 찾는 많은 피서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민원실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장수군은 지난 15일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초기 상황 인지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 △형원경찰의 현장 통제 △경찰 출동 및 상황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실전과 같이 진행하며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과 청원경찰, 장수경찰서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대응하는 과정을 반복 숙달하며,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공덕면 존경마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2026년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인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존경마을에서 어르신들의 문화 활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 사랑해!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마을 주민 간의 따뜻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초고령사회의 모범적인 공동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존경마을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마을 어르신 및 주민 20여명이 참여한다. 여가 활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 향상을 성취감을 고취하는 전문 체험 과정으로 구성했다. /김제=곽도태기자

익산 민간기록물 공모전 성료... ‘길 위의 기억 한 곳에’

기록물 총 2117점 접수... 수상자 45명 선정 · 10월 시상식 · 전시회 개최
엄성용 씨 출품 ‘1960~2010 연대별 상제마을 전경 사진’ 대상 선정

익산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민들의 소중한 기억이 한자리에 모였다.

익산시는 ‘환승기록: 익산편-길에서 만난 기록’을 주제로 진행한 제6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수상자 45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 교통의 관문이자 중심지인 익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교통과 시민들의 길 위의 삶’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57명이 참여해 2,117점의 기록물을 기증했다.

적격성 · 진본성 · 대표성 · 정보성 · 보존 ·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7명 등 총 4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엄성용 씨가 출품한 ‘1960~2010 연대별 상제마을 전경 사진’이 차지했다. 이 기록물은 반세기 동안 변화한 상제마을의 모습과 생활환경을 10년 단위로 담아내 지역의 생활사와 도시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박순재 씨의 병오년 윤산월 갑자강안(講案) △정민원 씨의 ‘이리역 기념 사진첩’ △최완규 씨의 ‘1973~2016년 청학문학동인회 관련 기록물’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 ‘철도’ 5월호(김철호 씨 제출) △전라북도민경(최영호 씨 제출) △진사 시험지·답안지·합격자 명부(강성만 씨 제출) △이승만 대통령 사진



(김대중 씨) △베트남전 파병 청룡부대 위문편지(주숙경 씨 제출) △불이전북농장과 임익수리조합 홍보인쇄물(김기수 씨 제출) 등이 선정돼 익산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물들이 고르게 이름을 올렸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보존 처리와 등록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명단을 등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전시회에서는 익산의 길과 교통,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담긴 다양한 기록을 선보이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교총·드림드 산후조리원, 교원 복지 증진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교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드림드 산후조리원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지난 14일 전주 드림드 산후조리원에서 드림드 산후조리원(대표 허진)과 교원 복지 증진 및 출산·육아기 교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 있는 교원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에서 산후 회복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교원의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교총 회원은 드림드 산후조리원 이용 시 협약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양 기관은 회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관련 혜택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북교총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복지 혜택 제공을 넘어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생애 주기에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유니텍고, 작년 이어 올해도 산업기사 합격 성과 이어가

전북유니텍고등학교(교장 박종재)는 202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평가에서 제과산업기사 응시생 14명이 전원 합격하고,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응시생 15명 중 13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에는 조리테크과와 EV기계과 학생 총 29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27명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해 93.1%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제과산업기사에 응시한 조리테크과 학생 14명은 전원이 합격하며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실무역량을 입증하였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평가에서도 EV기계과 학생 15명 중 13명이 합격하였다. 학생들은 자동차 기관과 배기, 전기·전자장치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혀 높은 합격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유니텍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론·실습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 수준과 실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를 실시해 왔다.

학생들 역시 수업과 실습에 성실히 참여하며 반복적인 과제 수행과 평가 준비를 통해 전공 능력을 꾸준히 향상했다.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체계적인 지도, 학교의 자격 취득 지원이 함께 이뤄낸 결과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 내장상동 주민자치회, 문화체험 프로그램

정읍시 내장상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영수)는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주민 투표로 선정된 시범사업인 ‘주민자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주민자치센터 교육실에서 화차별 주민 20명 안팎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용품을 직접 만드는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약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김광립)는 지난 16일 중앙회 제3강의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및 청년 해외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형재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과 조봉업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일 네팔로 출국하는 새마을 해외봉사단도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과 나눔문화 확산 △대학생 단기 해외파견 봉사활동 추진 및 지원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총 3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 가운데 2억 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업에, 1억 원은 새마을 해외봉사단의 해외 교육봉사 및 환경개선 활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위촉된 20명의 새마을 해외봉사단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간 해외 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사전교육을 마친 후 20일 네팔로 출국해 2주간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순창아너스클럽, 장애인복지관서 삼계탕 나눔 행사

순창 아너스클럽은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과 가족들의 기력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과 보호자 등 150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가나나 최정화 대표가 삼계탕에 들어갈 장작 200개를 후원했으며, 순창아너스클럽 조정만 회장은 수박 5통을 후원하여 더욱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아너스클럽 관계자는 “뜻을 모아 후원해 주신 최정화 대표님과 조정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일 기자



임실 신덕면지사협,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진행

임실군 신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진성·김선기)는 최근, 초복을 맞아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5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홀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50가구에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지원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복을 앞두고 협의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은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를 기원하며 삼계탕 50인분을 직접 만들어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안부 확인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선기 민간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봉사를 함께 해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부안경찰서, 청소년 ‘사.이.다.’ 행사 성황리 개최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지난 15일 부안 남주중학교 전교생 33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고민 소통 프로젝트인 ‘사.이.다.’(사소한것도 이야기해줘, 다 들어줄게) 행사를 부안창년회회소 및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학업스트레스, 교우관계, 진로 등 청소년의 고민을 이끌어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수집된 334명 학생들의 소중한 고민 티켓은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전담 직접 확인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순 고민부터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사건까지 분류하여 일대일 상담, 학교차원의 제도, 혹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